

교회 목표

신뢰한 예배
친구인관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새로 사랑

주관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충청회 사물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하나님으로 부터 숨기

“...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 3:7-12)



무서운 유혹과 우리의 변명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들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장들 중 하나로서 인간의 불순종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시험과 타락을 아주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1절). 이 질문 뒤에는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수천가지의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뱀의 질문을 받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행동들을 진리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올려 놓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들을 만들어냄으로 마음을 온갖 핑계와 변명들로 가득 채우며,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숨어있는 죄의 본성

금지된 실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 놀라운 특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아담담고 고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귀한 특권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극단적인 실수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신 하나님은 당시의 피조물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피하여 숨었습니다. 왜입니까? 타락은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본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헛된 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3:9). 우렁찬 소리가 동산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찾으십니다. “인간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사람들은 열매없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수고는 문재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찾고 추구하는 모든 노력과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만 일을 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을 얻었으나 그 대가로 함께 받아야 했습니 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와서 입을 엮어 치마를 하얗더라”(7절). 실과 그들은 얻은 것이 있었지만 단지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 만든 정도의 지혜뿐이었습니다.

고백을 통해 나아가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대신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를 초월합니다. 만일 이것을 오랫동안 무시한 채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첫 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 그것만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나 좋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사 138:7).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요 3:16). “성령과 진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제 22:17). 그러나 이 초청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이름으로 오리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요 5:43).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스리시므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의 일제를 피하거나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를 찾지도 않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숨을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날이 순식간에 다치게 되면 더 이상 구원 얻을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진노로부터 숨으려고 몸부림 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시라”(눅 23:30).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아에 앉으신 이의 아버지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제 6:16).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지만, 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죄인 위에 진노를 부으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어린 양에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그러저러한 역사상의 일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과 더불어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아무리 자신을 성도로 가장 할지라도 오직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거만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던 이 땅의 모든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했던 모든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모든 그의 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강한 자들과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의 종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성도 여러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숨지 말고 그 진리를 볼드십시오. 그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숨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숨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있으며 그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대화하시고 그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ეთ 계신 것과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니 위ეთ 계는 생각하고 땅에 있는 생 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대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1-4). 아멘.

HIDING FROM GOD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the man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 Then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and said to him, 'Where are you?'..."(Genesis 3:7-12)

The very idea of hiding from God seems rather ridiculous, because we know that God is omnipresent (present everywhere simultaneously). There's no place inside or outside of ourselves where we can go and God's not there. He is everywhere at all times! Even so, it is the sinner's nature to hide from God. Today's Scripture passages pertain to the folly and shame of disobedience, and are contained in one of the most basic chapters in the Bible. Genesis 3 simply illustrates temptation and human failure. The serpent asked Eve, "Indeed, has God said,"(v. 1). The question that followed now follows a thousand different pathways toward temptation. Like Adam and Eve, we try to rationalize our actions in direct contrast to the truth. We believe the lies of Satan and many times place our own wills above God's. We're constantly filled with excuses and think that there's no other way, no hope.

Prior to eating the forbidden fruit, Adam and Eve enjoyed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They experienced ultimate happiness. After their disobedience,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the man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v. 8). Just imagine the wonderful privilege of hearing God walk! Adam and Eve heard the sound of God walking, knowing that He wanted to walk with them and talk with them. They had this delicate and delicious fellowship with God. Instead of embracing it, they turned away from it. They hid themselves. Here, man and woman experienced ultimate sadness. Here, our amazing God, our righteous God desired fellowship with His human creation, and His creation hid. Why? Fallen people hide from God.

"Then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and said to him, 'Where are you?'"(v. 9). A loud noise, a big voice spoke out within the garden. God was seeking His people. God is always seeking sinners,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Lk. 19:10). All humans try hard for the things that amount to nothing. They eat from the tree that God doesn't want them to eat from. They try hard for the wrong things. Adam and Eve did try, and they got what they were seeking,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loin coverings"(v. 7). Indeed, they got something! They got the wisdom to make leaf clothing.

Human work amounts to nothing, and usually nothing but trouble. All the time and effort put into seeking things outside of God's realm leads to more and more seclusion from God. Adam and Eve tried to hide from God. They found out that withdrawal from God makes humans dry out and wither. It makes them fail again, and again, and again. What do we need to do in order to avoid this horrid death? Instead of hiding, we need to seek God. We need to confess our sins instead of hiding them.

Shame and guilt are the consequences of sin. If ignored for long periods of time, they will cause hardness of heart. When sin occurs, we need to confess and repent. To confess sin means to seek God. To repent means to regret and turn away from sin. The first response of Adam and Eve to their sinful condition was to hide from God. Wrong move! Christ's unhindered openness to the Father was both a model for life and the means of removing humanity's shame. Right move! We need to be open and honest with God at all times, knowing that He is our loving Father who forgives all sin through Christ.

The Word of God, this Bible, shows God is seeking us! Sometimes through suffering, sometimes through trials or temptations, we find out God is seeking us. Sometimes through listening to a sermon, sometimes through a lovely friend, we find out that God is seeking us. God is seeking you! God shows He is seeking us,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Or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Ps. 139:7). Not only

that, but God invites us to Him,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Mt. 11:28). God seeks and invites us to come to Him. He loves us so much (see Jn. 3:16).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Rev. 22:17). Yet, there are those who still try to hide, "and you are unwilling to come to Me so that you may have life"(Jn. 6:40). Jesus tells us, "I have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ou do not receive Me; if another comes in his own name, you will receive him"(Jn. 6:43).

Still, we try to hide from God's authority. We may avoid or ignore God's presence, and thus not seek Him or allow Him to dwell within, but no one has the opportunity to hide from His authority. God created us as moral creatures and gave us a liberty to think. We have the free will to sin. We have the freedom to disobey God. The consequences of such acts are fearful and terrible, but God has provided a way of escap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rom now until Christ's return, opportunity abounds. However, when Jesus returns again, which may happen at any moment, no one will have a choice! People will try to hide, "Then they will begin to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Lk. 23:30). Those who have tried to hide themselves from God will cry out to the mountains and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presence of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Rev. 6:16).

The Lamb of God is normally pictured as tender and gentle, never angry, but here it is the wrath of the Lamb of God which will befall sinners. Why? Jesus died for you. He was slain on the cross for you. He offers you a second opportunity. He wants to deliver you from sin. He wants to redeem you and reconcile you to God. All this time, He gave Himself to you wholly, peacefully, and freely. Those who have continued to try and hide from Him, rejected Him, now must face righteous judgment,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Jn. 3:36).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are not superficial historical events, but one of ultimate significance. His second coming marks the permanence of judgment. There's no second chance. When it happens, all men will act as if they believe, but only those who have true faith will live.

Who is really hiding? All the kings of the earth hide because they are so proud and don't need God. All the famous people who want glory for themselves. All the richest people who think wealth is more important than God. All the honorable and strong men of the earth because they think they are the greatest. Truly, all the slaves of sin hide from God.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that is,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the past ages and generations, but has now been manifested to His saints, to whom God willed to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Col. 1:26-27). My friends, the secret is out! Jesus shows us everything! Don't hide, just grab the truth, and we will receive His grace.

If you really want to hide, be hidden in Christ.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Col. 3:1-4). Amen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①

서울에서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십자가 네온이 뿔갈퀴 타고 있다. 필자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온 천지가 십자가 투성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특상해 볼 여유도 없이 붉은 색에 감탄하고 이내 내려온다. 그리고 굳으리 갔다.

군에서 십자가를 구경할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적막이 흐르던 언덕배기 교회 종탑의 십자가에 붙어 켜졌다. 그곳이나 부사관에게 욕을 먹고 군무를 서며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볼 때, 집에 개인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그리움에 사무칠 때, 그리고 자꾸만 퇴색해 가는 내 신앙을 적시할 때 항상 그 십자가 불빛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왔다. 십자가가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강렬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십자가 사건을 흔히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한다. 죄의 대가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과 그 죄짓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절묘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죄짓은 인간은 죽어야 한다. 죄는 하나님과 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시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분의 사랑의 성품이 인간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

여기에는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 먼저 낮아짐에 대한 고통이다. 성육신 하심으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이셨다. 또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유혹들과 의식주의 문제, 사죄, 경제, 문화적인 제한 속에서 승리하는 모범을 보이셨다.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고 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부분이 이러한 모범일 것이다. 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상관없이 사시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셨고, 그 문제에 동참하셨고, 더불어 짐을 지셨다. 실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체험하셨다. 신이 말이다.

그 고통은 십자가에서 극한을 이룬다. 세상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그 고통이 사랑의 결정체를 이루었고 결국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참된 자유가 선포된 것이다. 다이스 죄에서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하락된 것이다.

이 십자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철저한 모범이 된다.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세상에 많은 유혹과 단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작업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것에 후회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 이후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얻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십자가는 2000년이 넘도록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십자가에는 아담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우리의 지지고 낙심되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분의 명을 지고 갈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필자가 군에서 십자가를 새롭게 인식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강성준(전학생)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③

옛날 로마제국의 여러 가지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따르고 싶었던 제자들이 실망하고 도망쳤던 것이다. 현대에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보다는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십자가의 형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서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등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스럽거나 주술적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지도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었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②

처음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는 십자가를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등을 말씀하셨는데 토대신앙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년시절의 저는 신앙에 대한 고민도, 믿음이 없음에 대한 십자가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군 복무 시절을 거치면서 조금씩 믿음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생일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단지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교회에 오면서 조금씩,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예수님이나 말씀보다 노는 것이 좋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기보다 지체들과의 교제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주님의 만민이 있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회회를 다니는 것과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정도로 행나아 걸 모습은 크리스천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에는 평안함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회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났음에도 저는 마음 속으로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제1회 담사에는 정말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대학부에도, 제 자신의 믿음에도 소망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사님의 권유로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저를 조금씩 변화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받던 중에 여름수련회를 통해 헌신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 조종사로 섬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전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학부 44명을 섬기는 팀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평생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영혼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인지 일만명 사랑하고 개인지 부족한 제가 다 알수는 없지만 한 부분 한 부분 알게 해 주실 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왜 진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도 합니다.

제에게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을 섬기시며 영혼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경험하셨던 것이니까요. 저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저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내가 저야 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따라가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쉽고도 편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모든 일을 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몰랐던 아까지도 너무 힘들게 찾고 있을 테니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가장 낮아지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도 힘들고 치욕적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강인준(전학생)

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명’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쉼을 얻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 왜냐하면 그곳에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들이 나에게 명에 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주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자신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정국환(전학생)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12일(화)-8월 20일(수)	불가리아	8교구 7지역	김종홍
8월 12일(화)-8월 20일(수)	불가리아	8교구 9지역	김종선
8월 12일(화)-8월 22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3지역	정재모
8월 12일(화)-8월 22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10지역	박문태
8월 13일(수)-8월 21일(목)	리투아니아	5교구 6지역	김달현
8월 13일(수)-8월 22일(금)	슬리랑카	17교구 5지역	정선현
8월 13일(수)-8월 22일(금)	리투아니아	17교구 6지역	이용현
8월 15일(금)-8월 22일(금)	키르기즈스탄	17교구 12지역	박광래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4일(월)-8월 13일(수)	인 도	10교구 1지역	장영환
8월 4일(월)-8월 12일(화)	필리핀	Dale Ashworth 팀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16교구 4지역	홍원석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교구 12지역	구원섭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0교구 3지역	김영복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5교구 4지역	허 오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7교구 1지역	윤석진
8월 5일(화)-8월 14일(목)	방글라데시	17교구 3지역	이호일
8월 5일(화)-8월 14일(목)	슬리랑카	17교구 14지역	이인영
8월 5일(화)-8월 14일(목)	슬리랑카	6교구 7지역	문연식
8월 5일(화)-8월 14일(목)	슬리랑카	10교구 8지역	노태경
8월 5일(화)-8월 14일(목)	슬리랑카	11교구 7지역	김인술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9교구 4지역	홍성욱
8월 5일(화)-8월 13일(수)	우즈베키스탄	11교구 4지역	김철환
8월 5일(화)-8월 11일(목)	인 도	2교구 4지역	구재환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7교구 3지역	임창식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2교구 7지역	박창서
8월 5일(화)-8월 15일(금)	카자흐스탄	12교구 4지역	윤우선
8월 6일(수)-8월 15일(금)	불가리아	11교구 3지역	석영식
8월 7일(목)-8월 11일(목)	키르기즈스탄	2교구 11지역	박상대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9교구 9지역	이명희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13교구 2지역	최준호
8월 7일(목)-8월 14일(목)	키르기즈스탄	13교구 5지역	김은철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4교구 1지역	이상석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3지역	김병권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2지역	김장영
8월 7일(목)-8월 15일(금)	인 도	16교구 7지역	이기숙
8월 8일(금)-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3교구 7지역	김진국
8월 8일(금)-8월 16일(토)	우즈베키스탄	5교구 8지역	양기수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불가리아	13교구 1지역	임연수
8월 19일(화)-8월 29일(금)	우크라이나	4교구 5지역	박우현
8월 19일(화)-8월 29일(금)	우크라이나	8교구 2지역	박승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 희 (권사, 9교구 6지역)

처음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기를 권유 받았을 때는 무척 망설였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부족한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노방전도와 축조전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사랑하시며 이곳, 키르기즈스탄에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소로크레트'라는 곳에서 한 노부부를 전도하여 구원을 확인하는 고백을 들었고 '나냐'라는 할머니를 방문해 할머니의 병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장리카', '바냐', '안냐'라는 세 명의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장리카는 이미 믿음이 있었고 나머지 두 아이는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람게도 전도를 받고 나서, 안나는 어머니를, 바냐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무슬림을 전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스'와 '안냐'라는 유목민 부부였는데 아프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안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한다고 말했더니 안나는 오히려 저에게 무슬림 경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했더니 그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책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먼 곳에서 자기 나라에 와서 전도해 주니 고맙다'고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지에 와서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8)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루마니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정교회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동을 할 때면 주로 완행 열차를 이용했는데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니 그 시간도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젊은이들 중에는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으니 루마니아도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도전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가게 된 지역은 스리랑카의 콜라파피타입니다. 니콜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도 별로 염려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갈 때도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별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팀을 시작할 때부터 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이 되었던 일들 중 하나는 문안 인사로 전화를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집사님이 먼저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 말씀해 주셨던 일입니다. 스리랑카 사역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팀원 중 한분이 다리를 다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분의 건강과 팀원들 모두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5지역장
정선현

다녀왔습니다

박 운 하 (청년1부)

“다녀왔습니다.”

어딜 다녀왔나구요? 하하, 세상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과 명예, 나의 자존심과 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잠시 세상에 갔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님은 저로 인해 많은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셨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 때의 일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다보니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그때가 좋았지’ 하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며 ‘아, 그 때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실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모든 게 즐겁더라고요. 그렇다고 욕심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 얼굴에 수진이 가려지지는 않아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정말 좋더군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지내길 기도할게요.

잠잠하라 (막 4:35~41)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위대한 지도자라도 폭풍 앞에서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폭풍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든 본인의 힘으로 그 폭풍에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폭풍은 거세집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성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파도는 즉시 물러가고 달은 구름 사이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다시금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폭풍우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아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한은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폭풍을 지금 당장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시며 완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1부)

주를 보았사오니

내가 주를 보았사오니
주 임하신 그 성결한 땅에
내 선을 벗고 일어서리라

광활한 주의 천지를 보았사오니
참 빛된 주의 영광 비추사
복음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주가 묻어 놓으신 대양을 바라보오니
세상은 희망이 있어...
꿈이지 않는 두근거림으로
주 사랑하시는 영혼 만나보리라

연약한 육신이 바라보건데
그 땅에 네피렘들의 후손이 거하며
성문은 굳게 닫히고 요새화되어 두렵다하나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림박의 화살과 비탄의 방패 가운데서도
나 주의 전신갑주를 입어 힘써 싸우리라

그날에 주의 복음 들어가리니
성문은 열리고 우상의 벽이 허물어지며
비파와 수금들이 찬송하리라

찬양하라
말씀의 감을 돈다여
그 곳을 정복하고 주님께 바치라

구원의 기쁜소식 널리 전하리라

강진우 (대학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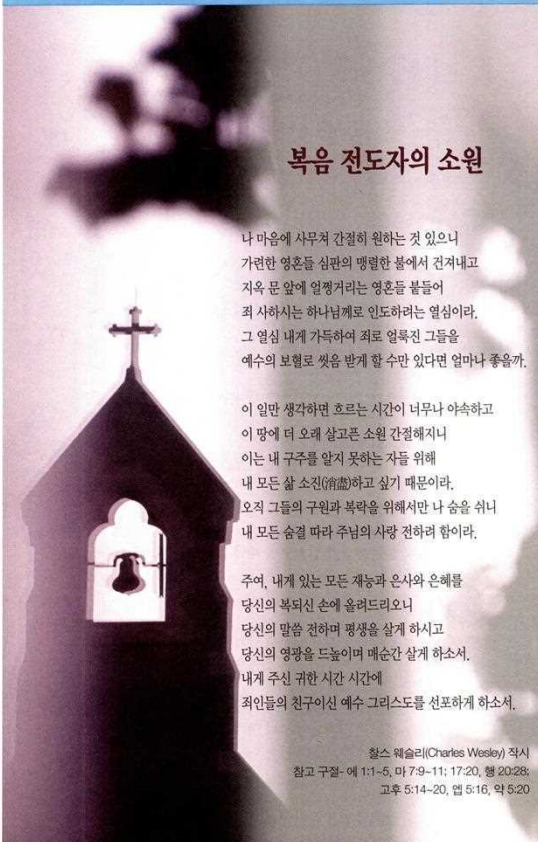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율법을 예전과 똑같이 잘 지켰다. 율법은 이미 그들에게 익숙했으므로 그들은 성령 반음과 율법을 지킬 간의 다른 점이나 그 사이에서의 충돌과 갈등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은 상황이 달랐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율법은 생소한 것이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무관하게 복음을 들으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을을 강조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3:30).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발생한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모르고 율법이 복음의 전제인 양 생각한다.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나쁜 행위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를테면 이웃과 사이가 나쁜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저래서 천국 가겠어?”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만 의를 정형화시키고 싶어 한다. 자꾸만 율법을 통해 믿음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의 최성에서 나온 본능이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같이 드러나는 선물적 모습으로 구원을 확증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위임회사담당께서 물결이나 선물공세를 통한 선교는 하지 말자고 제언한 것을 듣고 선교지에 간 한 성도가 현지의 사람이 배고픔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데도 꼭 참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목사님의 복음적인 의도는 간데없고 행위만 남았다. 인간은 왜 그리도 정형화를 좋아하는가? 왜 의도는 던져버리고 행위만 생각하는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자기가 율법에 묶여 있는지 믿음으로 자유로운지 알지 못한다.

이제 다음부터 몇 주간 말씀을 통해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우리가 말씀의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묶여있는지를 보고 스스로 놀랄 것이다. 필자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자신에게 놀라곤 한다. 이제 율법의 감을 벗어보자. 말씀에 깊이 빠지지 마.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참조
(권오섭)



복음 전도자의 소원

나 마음에 사무쳐 간절히 원하는 것 있으니
가련한 영혼들 심판의 맹렬한 불에서 전제내고
지옥 문 앞에 열썬거리리는 영혼들 붙들어
죄 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열심이라.
그 열심 내게 가득하여 죄로 얼룩진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만 생각하면 흐르는 시간이 너무나 아슬하고
이 땅에 또 오래 살라고 소원 간절해지니
이는 내 구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위해
내 모든 삶 소진(消耗)하고 싶기 때문이다.
오직 그들의 구원과 복락을 위해서만 내 삶을 쉬니
내 모든 슬픔 따라 주님의 사랑 전하러 함이라.

주여, 내게 있는 모든 재능과 온사와 은혜를
당신의 복되신 손에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말씀 전하며 평생을 살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노이며 매순간 살게 하소서.
내게 주신 귀한 시간 시간에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소서.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작시
참고 구절: 예 1:1-5, 마 7:9-11; 17:20, 행 20:28;
고후 5:14-20, 엡 5:16, 엡 5:20

아름다운들의 선교 일기-장원1부 81만을 만나고

장원 1부 81만은 우연인지, 배움의 결실인지 전원이 단기선교에 지원했다. 선교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고 처음 가려고 준비 중인 성도들도 있었다. 선교를 처음 접해보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단기선교를 가서 자신들도 주의 사도임을 알았다며 기뻐했다. 아름다운들의 선교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의 한 성도는 선교를 가기 전에는 '잘 훈련된 사람만 입선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선교는 헌금으로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아무에게나 쓰냐?'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순종해서 선교지로 가보니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이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었다. 러시아에 다니는 한 성도도 이 말에 동의하며 선교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다. 그 성도는 러시아는 선교활동이 자유로운 곳이 아니어서 경찰서에 가는 일도 있었는데 그 곳에서조차 좋은 사람을 만났으며 성령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약속되었던 학교에서의 집회도 무산되어 낙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며 한걸음 한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을 강조했다. 또, 한 성도는 대학시절에 선교에 뜻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살다보니 비전과 멀어졌지만 이제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으나 단기선교가 처음이다 보니 실수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외운 것만을 말하거나 답답하다며 기본적인 대답을 할 정도의 언어는 혼란을 받고 실다고 말한 성도도 있었고, 선교지에서는 함께 생활하되 나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영적 무장도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도도 있었다. 특히, 어떤 팀은 전도지에 내용이 잘못 쓰이기도 하고, 공용어로 준비했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가서 애를 먹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내는 지역의 언어를 전문가로부터 검증받고 전도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충현의 성도들의 이러한 경험과 생각들을 토대로 점점 더 효과적인 단기선교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한다.

(편집)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세웅 · 전지영 예비부부를 소개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를 다니는 등 마는 등 이철썬게 만다가,
군에 있을 때 믿음의 생계 교회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병이라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와 멀어졌다가 얼마 전 부모님의 전도로
충현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나 선교시
간에 듣는 말씀 중에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심하는 부분
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맘을 열고 말
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 전체가 마음에 화와 달지는 않습니다.

여자친구는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불교나 무교에서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의 부모님이 기쁘게 해 드리려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설교에 '아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식전에 기도도 합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겠다고 합니다. 우리 둘 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
다. 천천히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편집)

다음 주일 찬송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은 윌리엄 제임스 키크패트릭(William James Kirkpatrick, 1838~1921)이 1892년에 작사, 작곡했습니다. 키크패트릭은 펜실베이니아 로린즈빌 캠프집회의 찬송가 인도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직업가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찬송시가 떠올라 즉시 그 시(詩)를 기록하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가수에게 주어 독창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이 가사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들어 주님께 이르리게 되었습니다.

- 1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던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죄의 길을 걸었나이다. 주여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 2절: 많은 세월 허송한 나 집으로 옵니다. 나 눈물 흘리며 누워옵니다.
주여 집으로 옵니다.
- 3절: 죄와 방황에 지쳐 주여 집으로 옵니다. 주의 사랑 의지하고
주의 말씀 믿사옵고 집으로 옵니다.
- 4절: 내 영혼 병들었고 내 마음 아픔 당하여 집으로 옵니다.
새 힘 새롭게 하고 소망 회복코자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 5절: 나의 단 한가지 간구와 소망이 있다면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날 위한 죽음이니, 주님 나 이제 집(歸향)으로 옵니다.
(후렴)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집으로 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의 팔을 펼쳐 받으소서,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전원일원회)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50	박상민	1	청년2부 신명(주)	1060	강국진	8	사망부	1071	차정원	19	대학부 이진규(6)
1051	변은국	1	청년2부 신명(주)	1061	성종기	10	장년2부	1072	홍승기	19	대학부 배관현(5)
1052	김정대	1	청년2부	1062	임준하	11	청년2부	1073	한승이	19	대학부 유원봉(17)
1053	이성숙	4	청년2부 조용기(4)	1063	정민수	12	청년2부	1074	박국희	19	대학부 박민정(19)
1054	박문경	4	양육 배희소(8)	1065	송혜수	15	청년2부	1075	이정원	19	고등부 이종혜(1)
1055	정철호	6	장년부	1066	최훈	16	장년부	1076	이수정	19	고등부 박보람(8)
1056	김강호	6	장년부	1067	조민원	17	장년부	1077	오민정	19	고등부 박보람(8)
1057	이정환	6	청년2부 박민정(17)	1068	안용익	19	청년2부	1078	나현진	19	중등부 김지영(17)
1058	최희영	7	청년2부 엄정자(3)	1069	박민정	19	청년2부				
1059	김영미	8	청년2부 이점례(8)	1070	권희성	19	대학부	이진규(6)			

* 충현교회의 한 기독인(가)을 원해서 본은 본당 2003년 새가족 등록식 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라

석 해 린 (유치부 옆에 9만 교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경이다.

“이러기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은 때를 지어 않은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기에 함께 지내다보면 그들의 말 하나 하나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교사인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곤 한다. 물론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경학교 예배가 끝나자 우리반 아이가 질문했다.

“전도를 왜 하시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귀시 하는 거요? 그런데 선생님은 전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였다. 나는 어린 시절에만 전도를 해 보았고, 또 기도에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이 이어서 아이가 또 말했다.

“유치원에 가서 전도를 두 번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되고 두 번째는 잘 되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냥 전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전도하지 못하면 그 친구가 저쪽에 가잖아요.”

당연한 대답이었지만 순간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끄러웠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일에 소홀했음을 반성했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점검하게 되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내 영혼과 우리반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와 교회의 단기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아부 탐방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뚫어저쳐 쳐다보는 아이, 무엇이 못 마땅한지 엄마에게 칭얼대는 아이, 열심히 읊조림을 따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 예배를 드리는 유아부 아이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은 각자의 선생님 주위에 울방울방 모여 앉아 선생님께 전해 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등의 엉뚱한 대답들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세요?”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를 보고 호모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을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일어나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권할 것이며...”(신 6:6-7). 우리들에게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위업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일성수와 예배드리는 겉모습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별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은 최후에 날선 어떤 겉모습도 예리하고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

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가

치않는 일이 얼마나 있

을까요? 그리고 부모

가 아이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하

신 개회와 완전한 지

혜로움을 믿고 의

탁한다면, 이 아이들

은 가나안을 점령할 이

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교할 하나님

의 강한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

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삼상 3:19).

천국일꾼을 양성합니다.



(현대원 기자)

아이에게서 배우는 믿음

최 정 원 (유아부 중생 2만 백서원 엄마)

큰 애는 유치부, 서윤이는 유아부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주일이나 교회에 가면, 찬양대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유별나서 저는 주일만 되면 “오늘은 장난 안치고 일어나 벌렸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하며 항상 노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힘들면 찬양대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릴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며 찬양대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은 나의 기도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걱정할 때 유아부 선생님들께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주라고 하시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생각날 때마다 찬양을 자주 불렀고, 잘들었을 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우리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두 아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얼마전 서윤이가 아파서 “병원 가야겠다”고 말했더니, 안고도 일어나며 세 손가락을 자기 머리 위에 얹더니 찬송을 불러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나보다 낫구나 하고 뜨끔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키워려면 부모인 제가 아이들을 위해 전폭적인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찬송하며 지속적으로 말씀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며 ‘장차 천국일꾼으로 잘 자라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교회소식

모임

- 1. 감사 3지회 월례회
일시: 20일(수) 수요 3부 예배 후
장소: 영아루실

월례

- 1. 하준규 군(하남) 집사, 임예규 집사의 아들, 1교구와 전선원 영장집사 안수집사, 임장래 집사의 딸, 김병교(8월 22일(금)) 1500 강림리서
- 2. 원경원 군(수원) 성도, 이혜주 권사의 아들, 5교구와 한신외 영장집사 성도, 박찬용 성도의 딸, 인천해인교회(8월 23일(토)) 1400 성도 회당률 2층 세비율(28선 교대역 10명 주교)

별세

- 1. 이복순 성도 김수영 집사의 모친, 순헌원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행당2구역(8월 8일 별세, 8월 10일 장례)
- 2. 정성원 집사 조대남 권사의 남편, 정동주 집사의 부친, 10교구 돈암구역(8월 8일 별세, 8월 11일 장례)
- 3. 김경원 집사 정화순 집사의 남편, 2교구 논현2구역(8월 9일 별세, 8월 11일 장례)

주소변경

- 1. 박종현 안수집사, 이말순 권사
은평구 중산동 174-6 대원빌딩 203호 ☎ 02-572-1210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부임 윤전직·경비직
- 2. 자격 세례교인
-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등화장 추천서(세교인)
- 4. 서류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예배예수 충현교회
장로회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성동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후 5:00	본당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II 오후 10:50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청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II 오후 10:50		청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소양부	오후 12:15	강원리홀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초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사람부	오전 11:00	복합지 지하2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벧대부	오전 9:00(월) 오후 1:00(평일)	교육관 207호
중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대자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중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제자부	오전 9:30	강원리홀, 대자니홀
중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출현이민이방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고동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초기교육원	주간교육	출현 복지관
대학부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국내외자원봉사	오전 11:00	아면 홀
청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출현선교교편	오후 6:10	강원리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라틴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가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 판매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즈음에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두 18곡이 수록된 제1집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자'라는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충현의 앞길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선교에 동참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판매처: 사무국 / 판매대금: 테이프 1,000원 / CD 3,000원)

◆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 1. 일시: 2003년 8월 20일 수요 2부 예배
- 2. 장소: 본당예배실
- 3. 대상: 선교위원회 실행위원·147개 팀장 및 팀원·선교에 뜻이 있는 분

◆ 남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부터
- 2. 대상기간: 2003년 1월 ~ 6월
-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2003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교 (입원전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관 (방종준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한창덕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녀 찬양예배, 분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잘원리홀)			

이반주 새벽기도회 담당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주일)
설교/기도지	여성기/최태민	류명복/주희정	이종철/이영환	김영호/김진국	나광영/전계석	정승준/조옥자	여국근/안태순

예배 담당안내 (8/20-8/24)

날짜	예배	예배전찬양	기도	설교
8/20	수요 I	세례교인	류명복	황상건구학삼사(이레비 724-25) 이종대 목사
8/20	수요 II		이종철	황상건구학삼사(이레비 724-25) 이종대 목사
8/22	금요일예배	특별찬양(양성도·김종자·임광우·남성환·양민 16교구)	여성기	김영호 목사
8/24	주일 I		안영진	한승규 하남으로부터 송계광 37-12 이희철 목사
8/24	주일 II	내 주를 가까이 하세 함은 회개보리며 종종전(전도·김종호)	류명환	하남으로부터 송계광 37-12 이종대 목사
8/24	주일 III	고통의 땅에 밟으소서 이교도나 이세사(한영우가 찬양대 연주)	이종철	하남으로부터 송계광 37-12 이종대 목사
8/24	주일 IV	이 하나님의 은사로 회개나 감동(김영우가 찬양대 지휘)	김영환	이영진 하남으로부터 송계광 37-12 이종대 목사
8/24	주일 V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의 그리스도·노영진, 김재진(교무부)	안영진	하남으로부터 송계광 37-12 이종대 목사
8/24	주일찬양		전진호	노영환 새로운 피조물(CD 75-16) 전진호 목사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모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신교원목사	7교구장	영의 사기	이희철	교구원목사
최태민	엄필성	강우봉	이 훈	남건우
이희철	이희철	김종호	전영준	김종호
정운식	김영길	조인재	김종구	최귀환
8교구장	홍사범	홍사범	홍사범	김종호
김진세	이창호	차진석	김장남	이종철
교구장	새벽부	새벽부	새벽부	새벽부
이병호	안종욱	임두만	최기훈	이강재
신교원목사	목사부	목사부	목사부	목사부
전홍용	전홍철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황영일	전홍철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환기	황용철	이형수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환	최유덕	이계인
제2교구원목사	제2교구원목사	제2교구원목사	제2교구원목사	제2교구원목사
박덕양	이태식	장태수	박용규	전명호
제3교구원목사	제3교구원목사	제3교구원목사	제3교구원목사	제3교구원목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성호	박진섭
제4교구원목사	제4교구원목사	제4교구원목사	제4교구원목사	제4교구원목사
최지훈	노영환	박정구	정경진	신상수
제5교구원목사	제5교구원목사	제5교구원목사	제5교구원목사	제5교구원목사
강철형	고계승	김영은		
제6교구원목사	제6교구원목사	제6교구원목사		

■ 부목사

이종대	정현일	김종하	서광진	박진익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여성기	류명복	이종철	김영호	여국근
3교구	대부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김교성	이유진	안창철	방준영	나광영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정진호	김영철	이성호	고광환	류명환
7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이현덕	이희철
13교구	2교부	17교구	17교구	17교구
최종철	최준철	안치원	이태복	정승준
종동부	종동부	종동부	종동부	종동부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계영
제6교구원목사	제6교구원목사	제6교구원목사	제6교구원목사	제6교구원목사
■ 전도목사 이영진	■ 남진도사 이영희 (이교)			
■ 여전도사				
정원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진식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홍순애	이옥주	김민자	안태순	김영진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조옥자	강덕원	김정선	강혜구	최보실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전은희	김영준	김정자	이수경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신교원목사	
■ 전영감동 강기규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목장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영 (2년 1학기)				
■ 협력선교사 하효승 (10년)				

